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GPT-4o, 저작권침해 논란 확산

멀티모달 언어 이해능력 뛰어나
논리 기반 이미지 구성능력 강화

특정 모티브·기성작품 작풍 모방
AI기업, 학습 데이터셋 비공개
법적규제·투명성 확보 장치 없어

오픈AI가 GPT-4o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GPT-4o 이미지 생성은 기존 DALL·E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성형 엔진으로, 멀티모달(Multi-Modal)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현존 최고 수준의 이미지 생성 AI로 평가된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5일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이 추가된 이후 오픈AI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정도로 사용자 수요가 몰렸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지 생성 AI의 인기가 폭발하며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며 “실제로 GPU가 녹고 있다. 사용자가 급증하며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GPT-4o는 챗GPT 플러스 사용자 기준으로 분당 1, 2장, 시간당 30~50장 수준의 생성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이미지.

오픈AI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해당 기능의 무료 계정 적용은 유료한 상태다.

GPT-4o 이미지 생성 AI가 ‘가장 진보한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는 뛰어난 멀티모달 언어 이해 능력에 있다. GPT-4o는 텍스트로 전달된 객체 간의 의미 관계와 맥락을 정밀하게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이미지 구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는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들, 예컨대 DALL·E나 미드저니(Midjourney)가 개별 객체나 문맥 해석, 시점 유지 등에서 한계를 보여온 것과 비교되는 차별점이다.

특히 GPT-4o는 ‘논리 기반의 구성’과 ‘대화형 맥락 유지’ 기능을 통해 구조적 배치, 텍스트 삽입, 레이아웃 반복 등 정밀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논리 기반의 이미지 구성 능력이 강화되면서, 컷 만화 제작 또한 한층 간편해졌다. GPT-4o 이전의 이미지 생성 AI는 각 이미지를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동일 인물의 반복 생성, 시점 고정, 장면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GPT-4o는 언어적 맥락과 내러티브 구조를 파악해 레이아웃 반복, 캐릭터 연속성, 장면 전환 기법

등 만화 제작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캐릭터를 모티브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성 작품의 작풍을 모방하는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작가나 스튜디오가 개발한 화풍, 색채, 붓터치, 표현 방식 등이 고유한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AI가 이러한 스타일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작품을 무단으로 추출·재현하더라도, 원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실제로 생성형 AI는 개별 이미지를 단순 모사하는 수준을 넘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특정 작가나 스튜디오의 화풍, 색감, 붓터치, 인물 비례 등 ‘스타일 그 자체’를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 ‘디퓨전 모델’이다. 이는 처음에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해, 훈련된 AI가 수천~수만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마치 흐릿한 스케치를 점차 선명하게 다듬듯, AI는 학습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모델들에

서는 ‘LoRA(Low-Rank Adaptation)’나 ‘드림부스’ 같은 세부 기법을 통해 특정 인물이나 스타일을 수십 장의 이미지로 학습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스타일 유사성을 넘어서 ‘A 작가가 그렸다고 해도 믿을 만큼 정밀한 화풍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

GPT-4o 역시 자체적으로 멀티모달 언어 이해 능력을 활용해, 사용자가 묘사한 스타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과 유사한 화풍이나 시각 구성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브리 스타일의 배경에, 수채화 질감과 붓터치를 더해줘”라고 입력하면, GPT-4o는 단순히 수치적 스타일이 아니라 그 문맥적 조합을 이해한 뒤 스타일을 구현한다.

이는 단순한 사진 필터나 변환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으로, 창작인지 모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사용자나 창작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셋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규제나 투명성 확보 장치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기술 오남용 등... AI 윤리 문제 재점화

백악관, 정치적 목적으로 기능 남용
·챗GPT로 약자 괴롭힘 선전 ‘지적’
예술가 개인 화풍 재현은 거부하지만
스튜디오는 허용... ‘잘못된 이분법’

오픈AI가 이달 25일(현지 시간) 챗GPT-4o에 탑재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필터를 씌운 사진을 만들어 공유하는 게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처럼 퍼지면서 기술 오남용, 저작권 침해 등의 AI(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30일 미국 IT 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챗GPT로 지브리 그림체를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게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성형 AI 모델을 둘러싼 도덕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버지는 백악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지난 28일(이하 현지 시간) 공식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했다. 백악관은 “팬타닐 불법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된 외국인 범죄자가 미국에 불법으로 재입국한 뒤 필라델피아에서 체포됐다”며 “그녀는 체포될 때 울었다”는 설명을 달았다.

더버지의 테크·정책 분야 수석 에디터인 에디 로버트슨은 “백악관의 X 계정은 눈물 흘리는 구급자의 사진을 올렸고, 그 인물이 체포된 팬타닐 밀매자이자 불법 채류자라고 자랑하듯 적었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의 X 계정에 지브리 그림체를 모방해 만든 불법 채류자 이미지가 게시됐다. /백악관의 X 게시물 캡처

다”며 “그리고 그 뒤엔 거의 확실히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수갑 채우는 경찰관의 만화 이미지를 덧붙였다”고 밝혔다.

에디는 “백악관이 미국 내 이민자들을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추방하려는 시도를 챗GPT를 활용해 홍보하는 것에 대해 오픈AI와 샘 올트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챗GPT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여운 사진을 만드는 밈을, 백악관이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선전하는 것을 오픈AI가 묵인하는 건 매우 슬픈 일”이라며 “오픈AI는 이를 진정 ‘선한 AI’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지브리 밈의 그늘에는 이민자 탄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외에 예술가의 허락 없이 AI 훈련에 무단으로 사

용된 창작품 문제도 남아 있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27일 공개한 GPT-4 기술 문서를 통해 예술가들의 미학을 재현하는 데 있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생존 예술가의 작품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시도하려는 경우 챗GPT가 이를 거부하는 기능이 작동하지만, 보다 넓은 범위의 스튜디오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은 허용된다.

시사 잡지 더애틀랜틱은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드는 동시에, GPT-4o가 처음부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업물로 훈련됐는지 묻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의 미학을 이토록 잘 모방할 수 있었는지, 미야자키의 작품으로 훈련됐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등의 질문이 뒤따른다고 짚었다.

오픈AI가 예술가 개인의 화풍 재현은 막으면서도 스튜디오 스타일의 이미지 제작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술가와 스튜디오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미야자키의 경우 그의 개인적 감성이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정의한다는 이유에서다.

더애틀랜틱은 “지브리 스타일’이 곧 ‘미야자키 스타일’이다. 만약 오픈AI가 GPT-4o는 그의 작품으로 훈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역설이 발생한다”면서 “특정 예술가의 작업물이 아닌 그 작품에 대한 대중의 인상만으로 훈련된 모델이 그 스타일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hjk1@



KT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East에서 2025년도 KT디지털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T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자긍심 고취와 장학생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KT

KT, AI 기반 미래기술 인재육성 지원

‘KT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KT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East에서 2025년도 KT디지털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T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장학증서 수여, 팀 빌딩 프로그램, 운영 방향 공유,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 세션에서는 장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공유하고 KT에 기대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KT는 장학생들이 AI 기반의 미래 기술 혁신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관련 심화 교육, KT 임직원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 멘토링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차량용 AI 에이전트로 영역 확장

현대차그룹과 공동개발 나서

네이버가 커머스, 플레이스 등 분야별 AI 에이전트 전략에 이어 모빌리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다.

네이버는 30일 현대차그룹과 협업해 차량용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하고, 이 기술을 현대차의 개발자 컨퍼런스 ‘플레오스(Pleios) 25’를 통해 일부 공개했다. 양사는 현대차의 차량 운영체제 ‘Pleios OS’와 인공지능 플랫폼 ‘글레오

(Gleo) AI’에 네이버의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연동해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AI 에이전트를 구현했다.

이재후 네이버랩 부문장은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여해 “사용자가 차량 내에서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음성 명령을 사용하면, 그 의도를 파악해 목적지 설정은 물론 날씨, 뉴스, 일정 등 맞춤형 정보를 AI 브리핑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